

통일 칼럼

북한판 타우러스 공개

북한이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행사에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북한판 타우러스를 처음 공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군에 새 전략자산이 부여될 거라며, 공군력 강화를 예고했다.

한편, 이 자리엔 딸 주애도 석 달 만에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아버지와 별도로 장교의 경례를 받는 등 이례적인 모습도 포착됐는데, 후계 구도 공식화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북한 원산갈마비행장에 미군의 무인공격기 '리퍼'의 외형을 그대로 닮아 '북한판 리퍼'로 불리는 셋별-9형 무인기가 활주로 위로 미끄러지듯 내려앉았다.

이어 무인정찰기 셋별-4형과, 올해 처음 공개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도 속속 도착했다. 골이어 가족 통크트를 똑같이 차려입은 김정은 위원장과 딸 주애가 나란히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이 공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전략적 군사자산들과 함께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



정복규
논설위원

행사장에선 북한 공군의 각종 전투기와 다양한 무기체계가 선보였다.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를 빼닮은 미사일이 수호아-25 전투기에 장착된 모습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타우러스'는 500km 이상 날아가 강화 콘크리트까지 관통하는 초정밀 무기체계로 우리 공군도 운용하고 있다. 독일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미그-29 전투기에 탑재된 모습도 포착됐다.

북한의 현재 전투기들은 구형들로 작전 반경이 좁은데,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들을 장착하면 그만큼 공격 범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북한이 구형의 전투기를 최신화하는 대신 장착 무기들을 보완해 공군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수호아-25와 같은 구형의 전투기들을 최신화하기 위해선 레이더나 엔진 항공기 소프트웨어 등의 장비들을 최신화해야 되는데 북한의 가진 기술력이나 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감당할 여력이 충분치 않다.

다만 신형 유도무기나 활공폭탄 같은 그런 무기체계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이미 생산한 경험에 있고 또한 부분적으로 역개조라든지 모방이 쉽기 때문에 저가로 쉽게 전력화할 수 있다.

다만, 1970년대 개발된 구형 전투

기에 첨단 미사일을 통합하는 것이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아울러 단순히 장착된 모습만으론 미사일의 실제 성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행사에선 주애의 존재감도 확실히 부각됐다. 지난 9월 초 김 위원장과 중국 열병식에 참석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등장한 주애는, 옛된 티를 벗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연출했다.

주애의 키는 김정은과 비슷하거나 더 커 보일 정도로 자랐고, 단독으로 전투기 조종사들의 경례를 받는 장면도 나왔다.

과거엔 행사장에서 다소 산만하거나 지루해지는 모습도 종종 포착됐었지만, 이번에는 스스로 모든 의전을 행하며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에어쇼 관람 때는 선글라스를 쓰고 행사를 지켜보는가 하면, 일부 장면에서는 김정은보다 더 화면에 부각되는 연출까지 이어졌다. 이번 행사의 참성을 통해 후계자의 위치를 공식화해 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사설

쿠광 정보유출 후 주식 매도

3370만명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광의 주요 임원들이 수십억 원대 쿠광 보유 주식을 현금화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쿠광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쿠광 주식 7만6350주를 주당 29.0195달러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매도액은 약 218만6000달러, 우리 돈 32억 원에 이른다. 지난달 사임한 전 부사장도 사흘 뒤 쿠광 주식 2만17388주를 매도했다. 매각한 주식은 총 77만2000달러, 약 11억3000만 원에 이르는 신고했다.

쿠광은 지난달 고객 45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며 관계 당국에 피해 사실을 최초 신고했다.

그러나 열흘 뒤엔, 정보가 유출된 고객 계정이 3370만 개라고 정

정해 발표했다.

임원들의 주식 매도 시점은 쿠광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을 인지했다고 밝힌 때보다 이전이지만, 사건 이후에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쿠광이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하기 이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내에 없었는지 여부를 수사를 통해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쿠광 측은 임원들의 주식 매도는 개인정보 유출 시점과는 무관한 '이전부터 사전 계획된 매도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쿠광 측은 "보고된 주식 매도는 지난해 12월 8일에 채택한 Rule 10b5-1 거래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해당 계획은 주로 특정 세금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버방송 회고담

전북실버방송은 노인신문을 접고 바로 준비에 들어갔다. 방송은 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현장에 포커스를 두었다. 이 가운데 비중 있는 촬영 현장을 선별하여 소개한다.

▲제29회 노인의 날=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경로당프로그램발표회가 2024년 9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렸다. 김두봉 연합회장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는 지역사회에 큰 자산으로 그 지혜를 후배 세대들과 공유하여 밝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운전 사고 해마다 급증= 노인 운전 중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도로 교통 사고 사망자수는 2521명으로, 1년 전보다 1.2%(30명) 줄었다. 이 가운데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한 사망자 수는 761명으로 1년 전보다 2.1%(16명) 늘었다.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예방 교육=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자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적극 나

섰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교류와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중요한 활동이다.

▲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제2회 파크골프대회=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는 지난 4월 30일 완주 둔산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파크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전북노인대학 제39회 졸업= '제39회 전북 노인지도자대학 졸업식'이 전북 노인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졸업식에는 김두봉 전북연합회장, 김영구 전북연합회 자문위원장, 강영석 도 보건환경복지국장, 이병철 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김홍광 노인지도자대학장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졸업생들은 지난 5월 12일 개강 이후 지난 7개월간의 대학생활을 마무리하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특히 65세부터 91세까지 평균 연령이 79세에 달하는 고령임에도 평생교육의 의지를 갖고 열정적으로 수화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놀이기구 즐기는 크리스마스 마켓 방문객들



지난 11일(현지 시간) 독일 노스라인베스트팔렌주 헤르네의 '크랑거 바이나흐트자우버' 크리스마스 마켓 방문객들이 놀이기구를 즐기고 있다.

인공지능 관련 행정명령 서명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를 규제하는 주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